

# 배터리3사, 兆단위 투자 이어간다 설비·인재 등 중장기 성장성 제고

**LG엔솔** 북미 등 투자기조 지속  
**삼성SDI** 국내외 생산능력 확충  
**SK온** 올해 7.5조 설비투자 계획

국내 배터리 업계가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배터리업계가 잠정적인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공급망 확보와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매진한다는 전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한 초기 소비가 끝났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까지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배터리 업계는 중장기 성장을 위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대 유

사한 규모인 약 10조9000억원의 생산시설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회사는 GM 합작 2공장인 스텔란티스·현대차 합작공장 등 북미 지역 내 생산거점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매진한다. 다만 투자 기조는 유지해 나가되 상황에 따라 투자 속도 조정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I는 지난 1월 울산시와 협약해 1조원 규모의 양극재 및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 소재 양극재 자회사 에스티엠을 통해 양극재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충해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의 생산 능력도 높일 전망이다. 삼성SDI는 원통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말레이시아에 2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는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올해부터 '프라임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온은 지난2월에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7조5000억원의 설비투

자를 예고했다. 대부분의 캐팩스는 북미 투자에 집중될 예정이다.

업계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치열하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지난 2023년 12월 신설 부서인 전고체 배터리 전담 조직 'ASB(All Solid Battery) 사업화 추진팀'을 꾸리고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이를 통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 개발 직무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할 예정이다.

SK온은 셀·설비·공정·부품 등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서 개발 경력 직원과 신규 박사 총원에 나섰다.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R&D(연구·개발) 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차세대 배터리 모듈·팩 구조 설계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경력 사원을 뽑는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설비투자와 우수 인재 확보에 힘쓰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향후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대비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프리즈 LA에 마련된 LG 올레드 라운지

/LG전자

## LG전자, 美 LA에 '올레드 라운지' 조성

“올레드 TV만의 혁신적 가치 확산”

신형 LG 올레드 에보가 예술 작품으로 처음 선보인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LA 산타모니카 공원에서 열린 '프리즈 LA' 아트페어에 'LG 올레드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프리즈는 '아트바젤(Art Basel)'과 함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다. LG전자는 지난 21년부터 프리즈의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하며 '예술에 영감을 주고, 아티스트가 선호하는 올레드 TV'라는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예술에 관심이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LG 올레드 라운지는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로 6점 벽화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공간이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셰퍼드 페어리와 협업해 150㎡ 규모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작가와 협업해 작품 감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었다. LA 길거리를 연상시키는 컬러에 곳곳에

벽화처럼 올레드 TV를 전시해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보여준다.

특히, 공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작가의 대표작 '상처받고 잘못된 길(Damaged Wrong Path Mural)'은 77/65형 올레드 에보 2대를 이질감 없이 벽화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마치 하나의 초대형 벽화로 그려진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작가는 이번 협업에 대해 "의미 있는 주제를 통해 사람들 사이 도전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라며 "LG 올레드 TV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 예술의 표현을 새롭고 보람 있는 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오혜원 상무는 "예술에 영감을 주는 'OLED Art Project'를 통해 작품을 보여주는 디지털 캔버스이자 그 자체로 예술의 일부가 되는 LG 올레드 TV만의 혁신적인 가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갤럭시 북4' 시리즈, 국내 판매 10만대 돌파

**삼성전자** 전작 대비 한달이상 앞당겨  
주요행형 요인에 AI 퍼포먼스 꼽아

삼성전자가 모바일 AI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PC인 갤럭시 북4 시리즈까지 성공시켰다. AI 붐이 전세계 세트 산업을 부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주도권을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월까지 국내에서 갤럭시 북4 시리즈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1월 2일 출시 후 2달여 만이다.

이번 판매 기록은 갤럭시 북3 시리즈와 비교하면 6주나 빠른 수준이다. 갤럭시 북3도 가벼운 무게와 성능 등으로 호평을 얻으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던 바, 갤럭시 북4 시리즈가 기록을 훨씬 넘어섰다.



갤럭시 북4 시리즈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4 흥행 요인으로 최신 프로세서를 활용한 AI 퍼포먼스를 들었다. 실제로 갤럭시 북4 시리즈 판매량 중에서는 인텔 울트라 코어를 탑재한 갤럭시 북4 프로가 70%나 비중을 차지했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인텔이 처음으로 내놓은 NPU 적용 프로세서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다양한 AI 기능을 자체적으로 연산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갤럭시S24와 함께 공개한 갤럭시 AI를 활용해 갤럭시 북4시리즈에도 연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노트북 PC용 외장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와 '인텔 코어™ Ultra 9'를 탑재한 '갤럭시 북4 울트라'의 가장 상위 모델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사전 판매한다. 더블 스토리지와 '삼성 케어플러스' 12개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Home & Student' 사용권 혜택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 車업계, 무이자 할부 등 구매혜택 강화

**르노코리아** QM6 최대 240만원 혜택  
**한국지엠** 무이자·초저리 등 할부 지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저금리·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진행한다.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소비가 감소세를 맞으면서 완성차업체들이 판매량 증진을 위해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에 대해 최대 240만원, 중형 세단 SM6 Tce300 무이

자 할부 등 고객혜택을 강화한 판매조건을 내놨다.

QM6는 지난 달부터 진행 중인 'QM6 누적 판매 24만대 돌파 기념' 혜택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QM6는 24만대 돌파 기념으로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 아이패드와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고객 선호에 따라 최저 3% 저리 할부(36개월)부터 최대 240만원 구매 혜택까지 판매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형 SUV XM3는 영업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에 따라 최대 1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선수율 30%)을 제공하며, 고객이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선택할 시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초저리 프로그램을 통해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슈퍼 초저리 프로그램을 통해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SK온, 'Advanced SF 배터리' 공개

**인터배터리 2024**

충전 속도개선 등 다양한 신기술 소개

SK온이 보다 진화된 배터리 급속충전 성능을 선보인다. 기존의 SF배터리(급속충전) 대비 에너지 밀도는 높으면서 급속충전 성능은 유지한 신제품을 통해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SK온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Advanced SF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SF배터리는 SK온이 지난 2021년 처음 공개한 하이니켈 배터리다. 18분 만에 셀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Advanced SF 배터리는 이보다 에너지 밀도는 9% 높으면서 급속충전 시간은 유지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SK온은 특수 코팅공법을 통해 음극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음극 정렬 공법을 적용해 리튬이온 이동경로를 단축했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 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석 기술로 최적화된 급속충전 프로토콜까지 구현해 Advanced SF 배터리를 개발했다.

SK온은 급속충전 시간을 18분에서



Advanced SF배터리

/SK온

15분으로 단축한 SF+ 배터리도 선보인다. SK온만의 이중 레이어 구조에 고용량 실리콘과 저저항 흑연을 배치해 리튬이온 이동 거리를 줄이고, 이동 속도는 높였다. 고용량인 실리콘은 이동 거리를, 저항이 작은 흑연은 이동 속도를 각각 개선시킨다.

저온 성능을 개선한 '윈터 프로'(Winter Pro) LFP 배터리도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는 저온(-20℃)에서 주행 거리가 50~70%로 급감한다. 반면 윈터 프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19% 높이고도 저온에서 충전 용량과 방전 용량을 기존 LFP 배터리 대비 각각 약 16%, 10% 늘렸다.

SK온 관계자는 "전시관을 찾은 관객들은 SK온이 지닌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개발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기술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